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 電話光化門 一九〇〇

和協委員會와併行 紛爭解決交涉開始

왈왈事件엔伊國主張을容認

英佛伊三國政府에서

【倫敦二日發】 國際聯盟理事會 英佛伊三國代表會議에 意見이 一致되어 무쏘리니伊首相에 同意를 求하고저 一日夜電報한 新妥協方式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聯盟理事會의 紛爭介入을 八月二十一日以後로 延期함
一、和協委員會는 遲滯없이 再開하게함 그事件의 範圍는 왈왈事件과 其他紛爭의 直接的事項에 局限하다(伊太利의 主張을 容認한것)
一、和協委員會와 併行하야 英佛伊三國政府는 伊에紛爭을 一切解決코저交涉을 開始함
一、英佛伊交涉에는 關係國으로서 에치오피아도 干與시키어 一九〇六年條約及 聯盟規約의 條章에基하야 諸般解決을 講究할

上記和協交涉期間中에는 軍事行動의 戰爭에 訴치아니함을 誓約하는 一方무쏘리니伊首相이 伊太利國民의 意思가아니라고 反對하기때문에 決議案에서 削除된 一九〇六年條約에 依한交涉에 關한項目에 잇어서도 交涉國名을 英佛伊 에치오피아의 四國으로하지않고 다만 關係國이란 呼稱으로써 에치오피아의 干與를 默認하다 또 어떤 英代表는 理事會의 再開를 明示하고 交涉經過의 如何에 不拘하고 九月初旬에 一般的 審議가行할것을 豫定하도록 要望하엿으나 그 點도 明示되어잇지안타

史上空前의戰術

에國、各河川의流水를堰止

伊軍의渴死를期圖

【아디스아베바一日發聯合】 伊에 開戰이되면 伊太利軍은 소말리드植民地와 各河川과 河床을 堰止하야 砂漠의 熱砂를 潑하여 飮料水와 不足을補給할豫定으로 되어잇는에치오피아政府는 此等河川의 流水를 堰止하야 酷熱下의 伊太利軍을 渴死시킬 方針이어서 伊太利軍의 進軍開始함과 同時에 戰史上空前의 慘戰爭이 展開되리라한다。

社說

頻發하는少女失踪事件 警察은果能在乎

一

大京城의 中央地帶에있어서 白晝에 이와같은 奇怪한일이 頻發한다는것은 참으로 사람의所聞을 서늘하게 하는것이다。少女의 失踪! 이것을 單純하게 觀察한다면 少女에게 對하야 일어난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重大한 問題이거니와 그것이 少女를가지고 잇는 父母된사람의 全體의마음을 憂慮하다는 點으로 보면 그것은 참으로 重大한 社會的關心事라고 하지아니할수 없는것이다。 男子의失踪이라고하면 그것이 單純히 그男子自身의 安危에關한 問題가 될것이니 人命이 貴重하다는點으로보아서는 그것은 重大問題되는 바이지마는 女子의 失踪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決코 偶然的事實이 아니것고 반드시 그사이에는 陰險한 罪惡的犯罪性이 석여잇지아니하면 아니되것다는 點에잇어서 一層 우리의 驚愕을 갑절이게되는것이다。

二

近來에 少女失踪事件이 頻發한다는것은 新聞紙上의 報道에依하야 빈번히알려진바이어니와 最近에와서는 더욱 그度數가 頻繁하게되엇으니 그는 참으로 사람으로하여금 水害、失踪等 過失에依한 偶然的發生事故가아니요 그것이 某種의 罪惡에依하야 計劃的으로 實行되고잇는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되는바이니 父母된사람들로서는 一時라도 마음놓고 그들을 내노흘수 없는것이다。

지난三十一日 午後에는 某普校三年生인 十三歲女兒가 行方不明이된채 지금까지 그消息이 漠然하게되엇고 一日에는 十四歲된女兒가 또行方不明이된채 지금까지 그消息을 알수없는바이다。 그리고 지난二十七日과 二十四日에도 各九歲된女兒二名이 誘拐에걸리려다가 危機一髮의際에 겨우虎口를 脫하게되엇고 또 어떤少女는 二十五六人의婦女가 誘拐되어잇는 場所에 拉致되엇다가 겨우 脫出한事實이 明白하게 되엇다고 한다。

三

이와같은 戰慄할만한 事實이 우리앞에 展開되어 잇는것을 볼때에 우리로서는 그取締가 너무도 緩慢하다는것을 생각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니 어떠한 市民의 直接脅威가되는 事實에 對하야 다만 關係當局의 手段에 끈치지말고 좀더 積極的으로 當局者가 活動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을 믿는바이다。 [illegible] 우리는 警察이 果然 健在하냐고 못지아니할수 없는바이다。 그와같은事實이 頻發하는대도 當局이 束手無策으로 잇다고하면 그는 그職責을 履行하엿다고할수없는것이니 [illegible] 그리하야 少女들로하여금 安全히 行步하게하며 安全히 살게되는 城을 만들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니 이點에 關하야 再三 當路者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英空軍大練習

【倫敦發聯合】 歐洲와 非常時는 各國의 軍備競爭을 鼓吹하여 英國에서도 演習을 連日하다싶히하다 就中國民에의 防空思想普及과 空軍의 實戰에는가장 注力하고잇다 一、[illegible]

나치스旗侮辱事件 米政府回答

【華盛頓一日發】 米國國務當局은 獨逸代理大使로부터 手交받은米國人三名에關係잇는 나치스旗侮辱事件의 抗議에對하야 正式으로 同答하엿는데 右回答에 國務省當局는 該事件의 發生에遺憾의意思를 表示함과 同時에該事件發生에 對하여서는 米國官憲은 當時미리 부러면 船內自由出入을禁止하도록 要求하엿으나 同船이右要求에應하지않한것을 附記하고 따라서 米國官憲의過失에 依하야 發生한것이아니라고述하엿다

二十萬의蘇聯軍

極東國境에大集結

飛行機材料等을多量輸送

水陸兩用戰車도配備

【八月一日哈爾賓發電】 蘇國이 極東에 大兵力을 集結하고잇는것은 日滿蘇 三國의 平和를 爲하야 [illegible] 最近 [illegible] 兵 或은 極東軍補强工作에 腐心하야 二十萬의 大兵을살고잇는바 八、九月의 異動을 利用하야 다시 兵力을 增加시키려 [illegible] 軍用貨物列車 [illegible] 極東에 配備될것이라하다고 우스리、아무르兩線의 複線工事는 [illegible]

蘇聯의極東赤軍

近日上海出發

顧駐佛中國大使

【上海二日發聯合】 일즉이 제네바의 檜舞臺에서 松岡洋右氏와 鎬를 削한 駐佛大使 顧維鈞 博士는 目下 上海에 잇는데 聯盟總會出席次로 近日中 上海出發하야 제네바에 向할 豫定이라고 한다

國體明徵의聲明書

全體閣僚의諒解를어든후에

◇來週初發表할터

【東京電話聯合】 國體明徵問題에 關하야 陸軍首腦部와 [illegible] 二日午前 橋本次官은 [illegible]

聲明書要綱

【東京電話】 國體明徵問題에 對한 政府의 聲明書는 早速히 되면 三日 늦게되더라도 五日中에 [illegible]

一、日本國體의 世界無比로서 [illegible]

日滿의共同名義로 外蒙에最終的抗議

問題의하이라스事件

【電通新京二日發】 하이라스事件 外蒙 第一次回答에對한 一日의 關東軍及 滿洲國外交部合同會議의 結果 日本側으로서는 어데까지든지 既定方針대로 事件解決에 邁進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하야 一兩日中에 關東軍外交部共同의 名義로서 다시 峻烈한 抗議를 外蒙政府에 提出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事件의 速한 解決을 期하기爲하야 最後的 抗議로 [illegible] 되어 하이라스事件의 [illegible]

選擧違反은 嚴重取締

【東京電話聯合】 財務會議員의 選擧는 來月二十一日부터 大部分이 一個月以內에擧行되는데 司法省에서는 來十六、十七兩日에 [illegible] 各檢事長과 檢事正을 招集하야 小原法相及 光行檢事總長으로부터 各種示達을行하고 改正法의 疑義解釋을 一定하야 改正選擧法의 本旨에 [illegible]

怪文書發送의 一將校免職

【電通東京電話】 前日來 問題로 되어잇는 怪文書發送의 陸軍兩將校에對하야 二日 如左한 嚴重한 處分이 發表되엇다
陸軍步兵大尉 村中孝次
陸軍一等主計 磯部淺一

聲明의內容如何론 樞相의進退에까지發展?

軍部와政友側重視

【電通東京電話】 日本의國體明徵及 機關說排擊에關한 聲明內容은 [illegible] 陸海軍部及 政友會方面에서는 [illegible]

松岡新總裁 岡田首相訪問

【東京電話聯合】 松岡新滿鐵總裁는 二日午後三時十五分 岡田首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新任人事를 하고 同三時四十分 辭去하엿다

富再分配案과 米모겐소藏相

詳細한 註釋을迴避

【華盛頓一日發】 米國政府의 富再分配課稅案은 去三十日下院을 通過하야 本會議에 報告되엇는데 一日財務相모겐소氏는 兩院財政委員會에서 該案에 [illegible]

拓省豫算 二千八百餘萬圓

【電通東京電話】 拓務省에서는 二日午後一時半부터 新拓相官邸에서 [illegible]

一、豫算概算總額 二八、〇八〇
一、右內新規要求總額 約一二、六〇〇
一、[illegible] 五、六七四
(單位千圓)

松平駐英大使 外相에重要報告

同時에勇退를希望

【電通東京電話】 二日歸國한 駐英大使松平恒雄氏는 同日午後二時半 外務省에 登廳하야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illegible]

赴任을앞두고 松岡新總裁談

【東京電話聯合】 新滿鐵總裁松岡洋右氏는 二十日午前 [illegible]

八田副總裁의 留任決定

【大連二日發聯合】 林總裁의 辭任後 그進退에 關하야 種種 風說이잇든 八田副總裁는 二日 午後에 辭任치안코 現職에 留任하기로 決定하엿다

北鐵物資支拂 進行成績不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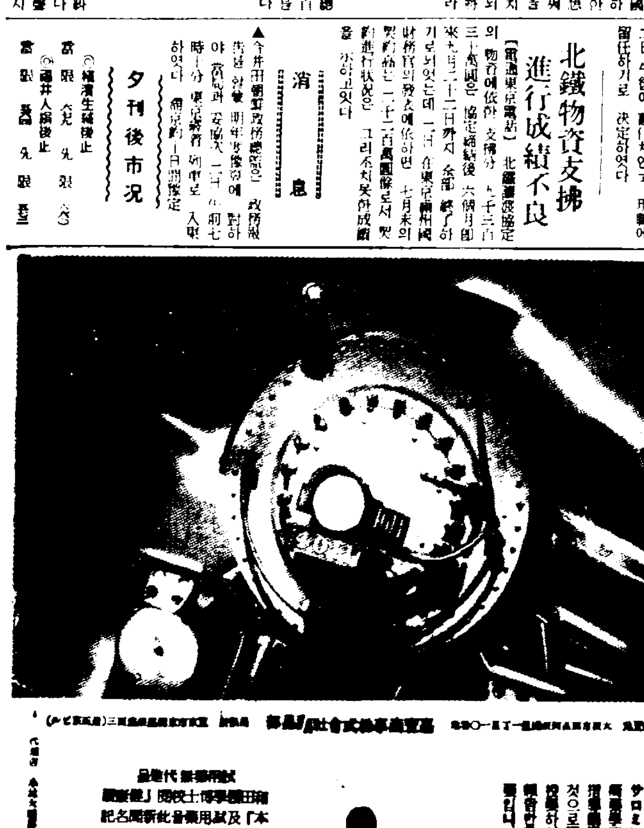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 北鐵讓渡協定의 物資에依한 支拂分 [illegible]

消息

▲今井田朝鮮政務總監은 [illegible]

夕刊後市況

◎米穀取引所後場 [illegible]



旅行にサロミンはつきものです。優秀な消化榮養便通劑
全國의鐵道從業員諸君!
健康至寶
帝國의鐵道從業員が世界一이라는것이 ...
サロミン은 ...
●適應症● 消化不良·常習便秘·食慾不振·下痢·軟便·貧血症·乳汁分泌不足·脚氣·榮養不良 ...
藥價 一〇〇錠·五十五錢 三〇〇錠·一圓五十錢 九〇〇錠·四圓
購買部又는近處藥局藥店에서사십시오
高級消化榮養劑 サロミン
鐵道業務の方も、事務の方も、そして家庭でも、サロミンを御愛用

水魔退却한廢墟에 復舊의氣分이橫溢

惡夢깬災民 이제겨우安堵에

問題는病魔와今後生途

【新義州에서 特派員 蔡廷根發電】 압록강의 수위는 四메돌로 감수되어 안동시가(安東市街)의 침수도 빠지게되어 一일밤부터는 안동각동백지부 해제되엿다하며 신의주시외도 전부 물이빠져 안정이되어 범서 복구공사에 착수하고잇으나 이재민은 대부분이 비명계(?)인만큼 수해후에 오는 너무도 어려움을 면하려하고잇다. 어쩌든(於赤)島수민이 긔적적으로 무사함은 긔뽀하바이어니와 현재의사가 만히잇어 의료기관의 활동을고대하고잇다고한다.

구후四시경 동부 ○사의과 동대문(東大門)앞에서 집을 싣다가 에서 상수천사의 신호하는 바람에 놀래어 갑작이 피하다가 一반 도리어 전시 잇든 편으로 피햇다가 미처 정거치못하는 통에 바(?) 편다리를 분질럿다 한다. 피해자는 즉시 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 치료중이고 가해자인 운전수는 강위량(姜偉樑)(二(?))이라한다

陽陽밑에 災地巡訪

千餘名에 應病與藥

今三日은 災害甚한 威化島로

本社醫療班冒險活動

【新義州에서本社特派員 蔡廷根電話】 재주의 병마가 날로 만연하야 본사를 위시한 기부하바이어니와 한편 수재에 가장 피해가 심하여 위화도(威化島)를 찾어 가서 진료에 착수하려 한다.

罹災民四萬

家屋被害一萬九千餘戶

平北水害漸次判明

一일 오후四시 평북경찰부로부터 경부수에 보고하바에 의하면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주민은 신의주(新義州)에 三만三천五백六十四인과 의주(義州)에 七천백二十五인을 위시하야 三만九천六백八十九인에 달하엿다. 그리고 가옥의 피해도 二백八十二건에 달하고 가옥의 피해는 유실과 도괴만이 四천四백四十四호이오 침수만이 五천二十三호이엇다.

▲楊光, 出頭, 楊市, 三橋川, 古 ... 배ㅣ(?)에 피해에 二만여원, 공리 수리조합 수해 一만여원에 ㅣ천정보에 달하리라 한다.

그리고 신의주와 서하(石下)자이의 침수로 철도(鐵道)가 불통되어 용산으로부터 공병(工兵) 二백명이 나려와서 복구작업을하는중인데 二일밤ㅣ시경에는 복구될모양이다.

異域에서맛난 同族愛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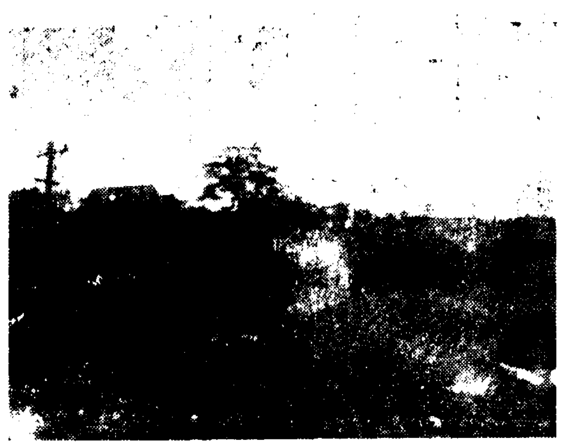
京都 水害同胞를 爲하야 名古屋金鍾勳氏의美擧

【경도】 시번 경도(京都) 대수해 지방 내 거주 동포들은 피해가 심하야 ... 명고옥(名古屋)시 ... 본 경도 ... 동포에게 분배해 달라고 하엿다.

龍川楊市水害

【양시】 지난 (?) 三橋川의 증수로 인하야 ...

撤水車에折脚



想像外의江原水害

死傷만六十六名

交通恢復으로至今에야判明

關東을蹂躪한水魔의慘跡

二일오후五시에 강원도경찰부로 들어온 보고에의하면 강원도내의 수해는 ...

그다음 가옥의 피해는 유실과 도괴가 백六十호 침수가 五백 ... 이엇다.

그리고 각군중 수해가 가장 심한 군은 인제(麟蹄)인데 도내에서는 ... 사망자 ...

滿鐵線에反滿軍

線路에자다가 轢死한사람

【부산】 三十一일 오후九시十분 경주(慶州)발 울산(蔚山)행 제二九 열차가 호개(虎溪)(?) 병영(兵營)사이 경주선에 ...

水國紀行【三】

이곳도 우리의땅? 常夏의南國情緒

濟州島行 山池浦에上陸하야　李無影

神秘스러운三姓穴

◇사진은 제주도 지봉

바다로! 그리운바다로!

元山水泳講習隊

今夜京城을떠나

시청앞오후六시까지만이

各地에서多數參加

◇講習會의任員

◇講習隊注意事項

一、講習會費 ...
一、會期 八月四日 ...
一、野營會費 ...
一、携帶物品 海水浴服、...

技運動競

都市對抗野球 對陣決定

【東京電話】 第九回日本都市對抗野球는 八月三日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될터인바 ...

▲第一日(三日) ...
A、全大阪(大阪) 對 ...
B、 ...
▲第二日(四日) ...
C、 ...
D、 ...
E、 ...
▲第三日(五日) ...
F、 ...
G、 ...
H、 ...
▲第四日(六日) ...
I、 A勝者 ― B勝者
J、 C勝者 ― D勝者
▲第五日(七日) ...
K、 E勝者 ― F勝者
L、 G勝者 ― H勝者
▲第六日(八日) ...
I의勝者 ― J의勝者
K의勝者 ― L의勝者
▲第七日(九日) ...

釜山蹴球大會 優勝은水晶軍에

【第一回戰】
牧島1 ( ) 0光成
【準決勝戰】
水晶1 ( ) 0道廳
龜浦7 ( ) 0牧島
【決勝戰】
水晶3 ( ) 0龜浦

法專庭球惜敗

新義州·金剛山往復 마라손隊抱川通過

원더포게르團朝鮮에

體育會常務會日

今日의運動

▼庭球 全日本 選拔軍對 全京城戰 午後二時 京城運動場코트
▼野球 ... 對 ... 午後四時 京城球場

本社主催巡迴講座

到處에聽衆殺到

北朝鮮一帶에 비처진 큰빛

轉地力鬪하는文化戰士

淸津

【청진지국전보】 본사주최의 ...

元山

【원산】 본사주최 ...

旅館에窃盜

形勢不穩으로 警察이徹夜警戒

무슨衝突이나 잇을까하야

舘洞借地人問題險惡

三部制를六部制로 消防機構擴張

各部에五十六名을配置하고

消防派出所와聯絡

痲藥犯五名被逮

本町署에서嚴重取調

背後의密輸團巢窟은

民間六大專門學校聯合

今日 開城 午後七時 高麗靑年會館

經濟 朴克采 普專、教育 崔承萬 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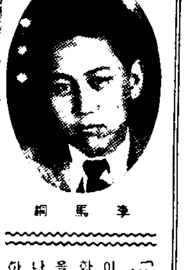
本社主催 夏期巡廻講座

長篇小說豫告

먼동이틀때

作者 李無影
挿畵 李馬銅

李無影



李馬銅

「作者의말」

「紹介의말」

八月八日부터連載

★그날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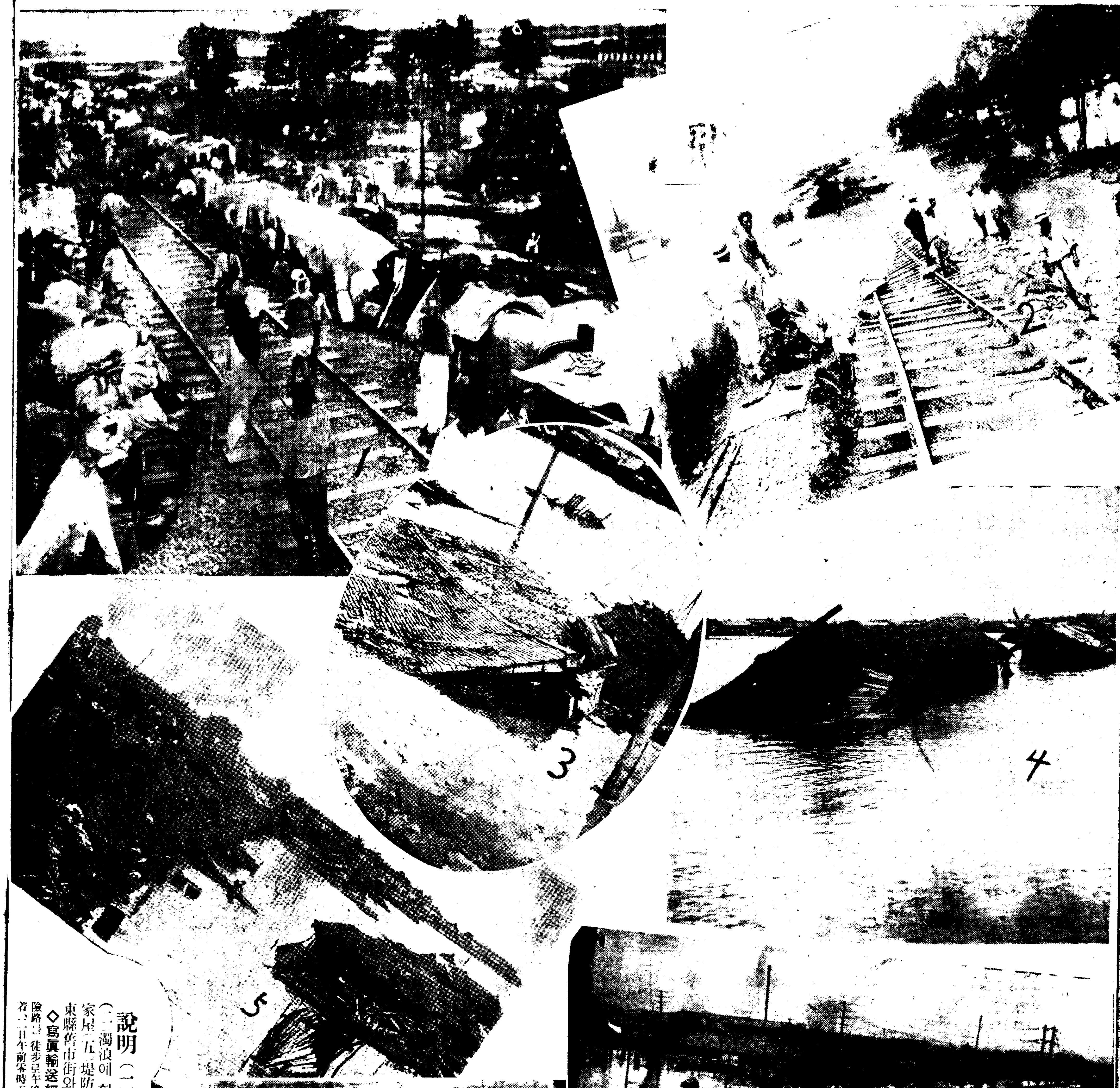
(陽)八月三日(土曜)
(陰)六月十二日(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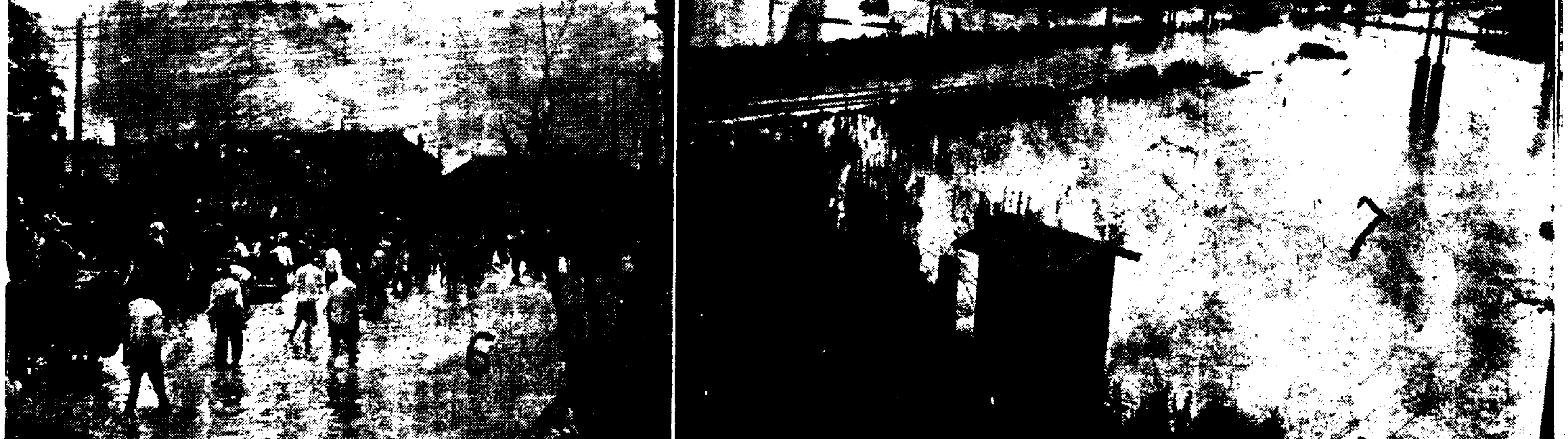
오늘의天氣

매우 조흡니다

暴威거둔長江과水魔의慘跡

◇本社特派寫眞班尹弼求撮影◇





說明 (一)鐵道沿線에急造한 避難民들의 土幕 (二)濁浪에 휩쓸린鐵路 (三)及(四)倒壞流失되는 家屋(五)堤防우에 避難民들 (六)及(七)浸水된安東縣舊市街와 쫏겨가는住民들

◇寫眞輸送經路＝ 一日午後五時 新義州出發、浸水四尺의 險路를 徒步로午後七時半 石下驛着、午後七時四十五分石下發宣川着、二日午前零時五十分 宣川發 十時三十五分 京城驛着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鄕校財産의濫用
寶城支局 一記者

鄕校財産의 運用에 對하야 말이 적지아니하얏스나 今番 全羅南道鄕校財産으로부터서도 往往 物議가 沸騰하얏으나 實際의 事情을 調査하야 보면 어찌할수 없엇든것이다.

今番에 鄕校財産을 所謂敎化事業이라는 美名下에 鄕校財産을 濫費시기고잇는데 今般 그 實狀을 當局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먼저 鄕校財産의 豫算을 보건대 昭和十年度 總入出豫算額이 七千六百四十一圓으로 比前年度 三、一一八圓增으로 其原因은 鄕校의 地方敎化費와 農事改良指導의 新規事業計劃에 依하야라고 하다。 그런데 支出科目을 보건대 첫재 文廟諸費 八百八十四圓으로 이것만이 在來의 經費로 鄕校에서 所用되고 殘額全部가 郡當局에서 費로 三百圓이 節約의 比較的 多한 點이 업지안타. 다음 地方敎化費가 三千五百八十三圓으로 比前年度 一千二百七十七圓增이다. 其中에 中堅人物講習會講費 八百六十圓中 一個月間 講師二人分手當 二百圓이 너무過大하며 敎化主事給料 七百六十九圓이 千不當한것이라고 하다. 어찌 地方費로 當當한 敎化主事를 두지안코 何必 鄕校財産에서 支給할理由가 那邊에 在한가?

그리고 敎化事業費實費 三百十圓의 支出은 社會政策的이여서 조금도 意味잇는것은 아니나 셋재를 가지고 더욱 意義잇게 學院等을 設置함이 至當한것이다. 이에 對하야는 今年에 鄕校當局이 農村靑年訓練所를 經營하야 매우고제하나 가리켜주는것이 없어서 허비케되는 此時代에 時機問題의 實로 數百圓 고 말엇다고하다. 林植栽實補助로 二百圓을 計上하얏으니 將年무엇을 植栽시기어엇던지 效果를 인게 되엇는가? 우는자에게 어떤金 너두자는 수적인가? 事業自身으로부터 別無必要하야 廢止할手段이에도 不拘하고 比前年度 百圓增은 奇怪千萬이다. 鄕校祭禮代 百五十圓은 將年計上하야 祭需를 購入하야 鄕校宣의 裝飾을 할二로하고 잇으나 이를 開放하야 鄕校에 實施을 設置하고 一般民衆에게 供覽시기지어다! 넷재 農事指導費 百圓 이도 新規計上하바 理由는 小作料의 品質問題으로 말미암아 種種的 農事改良指導를 必要로 하기때문이라고 하다. 이어찌 自家矛盾이 아니라? 産米增殖으로 農事改良을 자랑하는오늘날 새삼스러히 鄕校土地에만 農事가 發達되지 못하엿단 말인지? 더욱 種種的指導를 要하다면 全般的이여야 할것이니 農會長實等의 敎育施設을 하여주기를 바라는바이다.

斷水二日間水量이 平時給水量을超過
단수시간은 매일 여덟시간
炎熱地獄의元山府內

원산에서는 장마와 홍수로 야단을 치는 이판에 원산(元山)지방에는 혹열이 계속되어 수은주는 九十도이상에서 오르나리고 잇다. 이때에 원산부에서는 수도수를 절약하기 위하야 절수(節水)정책에 전부하고 잇다。 특별히 더욱 계속하더로 二十九일부터는 매일 단수를 하게 되엇는데 단수시간은 오전八시부터 오후四시까지인바 원산상수도 부설이래 처음되는 장시간의 단수이라 하며 금후 가물이 계속되면 단수시간을 더연장할수밧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二十九일 三十일 이틀동안의 단수의 수량(水量)과 평시 급수의 수량을 비교하면 단수 一일간의 수량이 훨신 만타고 한다。

하야 공원지에는 하더니 本是이지난이때까지 날마다비와 홍홍으로 입기는 시원을 방해하야 화전에가서

는범서썻고 삽교공은 황이를며말라서희망이 없으므로 일반인사은 극도로 초조하다고 한다。

栗浦海水浴團
寶城支局서募集

[보성] 본보 보성지국(本報寶城支局)에서는 반시민과 애독자제씨의 보건과 위안을 위하야 하로의 행락이나마 도리기위하야 율포(栗浦)해수욕장단원을 모집한다는바 시일은오는 四일이며 회비는 一원으로 당일 정무대회와기타 여흥이 만히잇다 한다。

孟山地方은 今年또凶年
장기의 침울 우랭한 일기로 馬鈴薯腐敗、離穀枯渴

[맹산] 평남맹산(孟山)지방은 작년이 미증유의 흉작이엿다함은 본보에 누누히 보도하바이어니와 금년이나 행여풍년이들가하고 희망하든 … 금년도 또흉년을 면치못하게되엿다 초복(初伏)전까지는 우순풍조

江岸의散策 ＝江界禿魯江에서＝

農校設置를 永興에서運動
不遠間道當局陳情

[영흥] 영흥(永興)에 잇어서는 농업학교(農業學校)설치문제는 실로 다년간의 현안으로 되어잇는데 이것이 희망대로 실현되지못하고 지금성겁어오든바 금번 총독부의 농어학교 증설방침의결정에 따러 명년도에는 전조선에 六七개교가량 증설할계획이라고 하므로 영흥군(永興郡)민들은 현재왕성의 이고회를 노지지안으려고 사방면에 여론이 비등되에 의하야 전농상학교(前農業學校)송겨기성회 발기회에서는 지난一일 모처에서 이시총회를 소집하고 응의한결과 위선 각관계당국에 농교설치를 진정하기로하는 동시에 진정위원四씨를 선거하얏다。

그리고 금후에 잇어서의 이문제에 대하야는 영흥군민협회(永興郡民協會)에 일임하야 사시 진행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水泳中少年溺死

[영산] 내려쪼이는三복 더위를 피하려고 수영을하다가 빠져죽은소년 지난三十一일 오전八시경에 영산강(榮山江)에서 나주군 영산면산영리(羅州郡榮山面三榮里)성기중(成基仲)의장사 성요시(成孝植)(一○)은 동모들과가치 목욕을하다가 그만절수하야 갑자기빠저죽엇다고한다。

내地方 當面問題
慶北奉化篇

普校增級促進

경북봉화군(奉化郡)은자니의명호(明湖)동안부봉화교개교로 법전(法田)으로 남기고는(法田基金驛集後道當局에認可願提出中) 一면一교재가 완성된세이다。

이름조은 一면一교가 파연그면의 학령아동을 수용하느냐가 사못문제의 초점이다。 최근년에 개교한 소천(小川)봉성(鳳城)상운(祥雲) 명호(明湖)등지의 四개학교는 아직이전하 六학년제가 못되고 三학급 四학급으로되어 이것을수용하고는 수하를 취업급입학하 하지못한관계로 大하

녀제의 금면인 내성(乃城)보통학교와 춘양(春陽)물야(物野)재산(才山)학교로 말려가는바 내성보통학교는 여긴이당면의 지원자만도 매여명급초과하야 신입이기가되면 어린아동의 입학하지못한 설으로 생사하 비상경경은 이부형은 물론 보는 사람의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 一야만부 입하지못의 설정이다。 이리하야 매년 입학하 늘 수급이되나 각면에 익교 졸업생으로써 달려오는 四、五학년에 보결(補缺)지원자들 전부 수용키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하므로 천진한 아동들은 부가불 노변에서 방황할뿐이다。

선사 입학이 되엿다 하드라도 一二、三세되는 아동이 二十리、三十리를 사전차로 통학을 하게되니 어찌그들에게는 교통이 아니라 어린 자녀의 과로등을 생각하고 교육시켜야 되겟다는 의부형들심이 깨끗는 학부형이여 하로바삐 본면마다 각자 각면 학교 六학년 증설속진문제에 매진하지이다。 그러고 어찌꺼로 수리고개노、궤 현역 과성회 가부 제씨에게만 겨울것이냐! 하로 셋끼를 두하여 관계당국자들의 성의된 촉진시켜야 할것이다。

幼稚園設置促進

봉화(奉化)의 당면 문제는 봉화기내의 무엇보다도 전시민이 갈망하는 유치원(幼稚園)설립이 초미의 급무이다。

다른 지방을 보라! 아무리 적은 군이라고 하지라도 읍면에 유치원설립이 없는곳은 없을것이다。 다같은 땅에서 다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어찌 유독 봉화만 이이 못 미치는가。

설재에만 몰두하고 주거이라도 자녀를 위하다거나 사회를 위한다거나 내지방의 문명을위하여서는 이럿듯 등하시 하시다니 뿌인가 사상 한심한 일이다。

내지방대표될만한 인사들이여 어찌 수야로 오락에만 도취되어 장태식(長太息)으로 선음의 광음을 헛되히 보내라고 드는가 하로바삐 반성하여 내지방당면문제에 부심하지며 힘쓸것이다。

전사의 보면상금 속진금부(普校增級促進急務)에잇어서 상세히 말한바이지 마는연년히 신입아이가 되면 연출하는 가지각색의 입학난의 광경을 보라 유치원이라도 만드러서 노변에서 방고잇는 어린이를 다려오지못하는가 그리고 수년동안 당지장노교회(長老敎會)가보습까지 이유지원설치문제에 만은힘을써오나 아직 실현을보지못하는것은 봉도하는바이며 주지의 사실이안님가 이것은결국 이이부급되는모양아니 뜻잇는인사는 어이교회에만 맡기고 방관시할것이아니라 시급히 분반하여 하루가지라도 곤란문제를해결하도록

보라! 봉화인사여! 봉화에서 과거나 현재에 그누구 하사람이라도 교육사업에 힘을쓴이가 잇으며 기타 사회시설에 조력한 유지가잇는가를 과다한 경비를 필요치아니하는 유치원인만치 우리는서로 붓들어 여기에당하기를바란다。

私立學校設立及夜學問題

봉화(奉化) 인사여! 봉화에잇어서 과거와 현재에 교육기관의 역사를 살펴보시어다。 우에 두가지로 입학난에서 헤매이는 아동들의 딱한 사정은 말하바이지마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손으로 된 사립대성학원(私立大成學院)이 어마만한공적을 남기엿는가 이에말지안나 광원잇든 협찬 성장용하려는 참나에 一만사라진다는 비운에 빠지고만어 우리 옛터의그자최는 보는사람으로써 감개무량한바이다。 이는 돈가진 인사의손이 못미처 결국 성영난에빠저 폐교된지도 十년이 가까워온다。 그동안 보교아동에 초과되는 청소년은 어찌되엇든가 그대로 문맹지옥에 빠지고 만엇다。 지금에도 一수말 해마다수없이 본반하야 사립야학설립에 성공하야 보교하려면 초과라는청소년을 수용하야 문맹에서 건저것이며 또한편 각동리마다 야학(夜學)을 설치하야 무산아동이 학자가없어 소학교에입학못하고 배움에 주주리는 농민, 노동 남녀를 한가하 밤(夜)에 여가를 이용하야 가르기도록 힘쓰기를 우리의청년에 재사부탁하다 그리고 관계각독 당국에서도 힘써서 장애없도록 허하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惑世誣民輩 五名을檢擧
반진대!성계중의 양양서가 所謂仙道敎의信徒

[양양] 금년의반전(反戰)는에변보다도、송더 엄중히경계하다하은 거보아바와같거니와 양양경찰서 고등계수이 원(原)경부보는 지난三十一일 미명에 박영一사검대동하고 양양면와이리 박시못(襄陽面…里)의집에나타나 동리박세동(朴世東)(?)과 현수팔 경북영일군(迎日郡)에 금박인동(朴仁東)(?) 포항남빈정(浦項南濱町)황영덕(黃永德)(?) 외一명 도합五명의 선도교(仙道敎)도를검거하야다가 엄중취조하고 잇는중인데 그들은 장소에서 자기들이 주상하는 교에가입하면 전쟁에나가서 총에맛더라도 죽지도안으며 조선(?)이되면 배승급시켜준다고 선전하며 가입자에게대하야는 매명에 五원씩의 가입금을받은사실이라는바 피해자도 상당히 만흔 모양이라한다。

母性愛는빗난다

아들救하려다가 어미니까지溺死
더위못이겨목욕하려다 奉化郡乃城의慘死

[봉화] 지난二十六일 오전十一시경경북 봉화군 내성면 거촌리(奉化郡乃城面巨村里)전답가에 잇는 웅덩이 구렁에 어머니와 아들이 빠저 죽은 시체를 건지라고 동리 사람들이 모이어 소(沼)의 제방을 터노코 물을 빼어 내인후 시체를 건지엇다 한다。 상세히 조사하바에 의하면 이날 오전八시경에 동리 一四四번지 강철훈(姜鐵勳)의 가속은 五마정되는 감자밭에 감자캐러 나갓다가 삼복중의 뜨거운 볏양을 못이겨 일을 중지하고 동十一시경 집으로 돌아오든중에 전기 강철훈의 장자 수원(長子壽元)(一○)은 전기 소에서 목욕을 하러 드러갓다가 나오지 못하게 되자 뒤에서 오든 어머니 남원의(南元儀)(?)는 위험도 무릅쓰고 빠저 아들 생명을 구하려고 가도 지체치 안코 단려들어 구조하려다가 마저 빠저서 못나오게 되니로 가치갓든 이웃사람이 이 정경을보고 당황망조하야 관마을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동을일으키여 수十여명이 달려왓으나 때는 벌서늣어 보자가모다 죽어잇엇다 한다。

移秧期經過後 小作權移動
◇모도 못심고 싸우는중 委員會에調停申請

[장성] 지난 三十一일 전남 장성군 소작위원회(長城郡小作委員會)에 소작조정 신청이 들어왓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대강 탐문한대 동군 남면 덕성리(南面德成里)이장순(李章淳)가 정읍군 내장면 쌍암리(井邑郡內藏面雙岩里)임문동(林文東)(假名)의 토지四두락을 작년부터 소작을 하여 오든바 이지주는 동리 정상금(鄭相金)(假名)에게 그두락을 이동하므로 동리 심윤택(沈允澤)씨가 자기 소유답을 대용으로 준다하여도 절대 거절하고 이지주는 지만 하다고 하므로 소작인 재는 이를 어디까지든지 대항코저하엿다는바 그 모든 아서 이앙도 못하엿다고 한다。

全文川蹴球大會

[문천] 문천유학생회(文川留學生會)주최의 제四회전문천축구대회(第四回全文川蹴球大會)를 오는十一일 문천내리 고등소학교운동장(川內里高等小學校運動場)에서개최한다는바 자세한것은 전과유학생회로 문의하이 조타고한다。

二千米以上의高山 咸南에四十餘個
白頭山을爲始하야

함경남도에 二천메돌 이상되는 고산(高山)이 四十여개나 되는바 등산가의 참고에 공하고저 백두산(白頭山)을 표준으로하야 적어보면 다음과같다。

白頭山 二、七四四米 國境
北水白山 二、五二二米 豐山郡熊耳面
蓮日峯 二、五〇六米 同及新興郡境
頭雲峯 二、四八七米 豐山長津郡界
白山 二、四七六米 豐山郡熊耳面
南胞胎山 二、四三五米 甲山郡雲興面
白山 二、三七九米 豐山、新興郡界
白頭山大胭脂峯 二、三六〇米 咸北茂三、甲山郡界
蓮花山 二、三五五米
北水山 二、三四七米 長津郡上南面
頭流山 二、三〇五米 豐山、新興郡界
北胞胎山 二、二八九米 端川、城津郡界
臥碣峯 二、二六二米 甲山、豐山郡界
猛扶山 二、二一四米 平北、咸南道界
(鷹峯)
大岩山 二、二〇五米 長津郡平北江界郡界
稀寒峯 二、一八五米 長津、豐山郡界
小白山 二、一八四米 三水、長津郡界
小白山 二、一七四米 長津郡平北界
東谷山 二、一六五米 咸南北道界(甲山郡)
玉蓮山 二、一六四米 豐山熊耳面
蘭白山 二、一四六米 豐山、新興郡界
大紅山 二、一六二米 白頭山東峯
樺德山 二、一五〇米 平北咸南道界
臥龍峯 二、一四五米 豐山、端川郡界
冠頭峯 二、一三六米 長津、平北江界郡界
大角峯 二、一二一米 甲山郡雲天面
希沙峯 二、一一七米 甲山、咸北吉州郡界
大德山 二、一一三米 北靑豐山郡界
將軍峯 二、一〇八米 豐山郡熊耳面
龍岩山 二、一〇一米 甲山郡雲天面
白沙峯 二、〇九九米 新興郡東上面
馬田嶺 二、〇八四米 長津、平南寧遠郡界
白山 二、〇七七米 平北咸南道界
北山 二、〇七〇米 長津郡上南面
錦曲嶺 二、〇六六米 長津郡新南面
門嶺峴 二、〇六二米 平安江界長津郡界
天鑑山 二、〇五八米 長津郡中南面
白沙峯 二、〇五七米 豐山郡安水面
姑岩 二、〇四八米 甲山郡咸北漁山郡界
黃峯 二、〇四六米 長津郡…面
大小角峯 二、〇四一米 甲山郡咸北城津郡界
天育勿山 二、〇三一米 甲山郡雲興面
黃峯 二、〇二二米 長津郡平北江界郡界
活基峰 二、〇〇三米 豐山郡熊耳面
萬塔山 二、〇〇三米 豐山端川郡界

그리고 함북에 관모산(冠帽山)二、五四一메돌과 운봉(雲峯)二、四四二메돌의 두고산이 잇다。

貨物自動車에 六十翁轢死
운전수는 인시취조중 ◇三十一日木浦서慘變

[목포] 지난三十一일 오후五시경 전남무안군 이로면 석현리(務安郡二老面石峴里)에서 광주행(光州行)화물자동차가 동군청계면 송현리(淸溪面松峴里)二二六번지 정달삼(丁達三)(六○)이와 충돌되어 즉사하엿다는데 전기 화물자동차는 목포부 명치정(木浦府明治町)一번지 부상의(布上儀六)의 소유로 운전수김막동(金莫同)(二九)이가 화물을 만재하고 운전하야 광주로가는도중 전기장소에서 고경사가 비틀 둘다가 그와같이 노인과충돌하야 참사케된것이라는데 목포서(木浦署)에서는 급보를접하고 시시운전수김막동은 구인하고 방금과실치사죄로 취조중이라고 한다。

義城市內電話

[의성] 경북의성읍(義城邑)의 부탁 시설중에하나인 시내전화는 다년간현안으로 지나에야 실현되엇는데 지난二十八일부터 가설공사중인바 八월중에는 개통되겟는데 가입구수는 우선 二十八번 까지라고 한다。

荷物自動車 濁浪에서顚覆

[관동] 지난二十六일 오후一시경 평북구성군 천마면 관동(龜城郡天摩面舘洞)대동광업소 하물자동차 평북 제九九三호를 운전수 배형순(裵亨俊)(二?)이 운전하여 가지고 목주하는 비행무섭싸고 노관동학을 출발하야 관동으로 돌아오는 도중 노교중리 강물건느라고 하다가 강복판에서 급격한 탁랑에 사체가밀리어 차가 몇번 전복되어 떠나려가다가 물가운데 걸려잇엇다는데 기적적으로 무변 사람들은 무사하엿다고한다。

曾坪公普校의 學年延長猛烈
석금이 만이어에 달해 陳情代表上道陳情

[청안] 충북괴산군증평공보교(槐山郡曾坪公普校)는현재四학년으로 면내아동은 고만두고 소재지인 증북선청안역전(忠北線淸安驛前)의호수八백여에 학령아동도수용하지 못하야 청주내수학은정안 도안으로 통학하는기관만 아니라 선사숭어하 아동들도四학년제도인만치 상급학교갈 생의도 못하고 노상에서 방황하므로 수년전부터 면민은 교사증축비가 준비하는업방 각간 도아무당국에 진정을하앗음은 본보에 봉하야수차 보도된바와 같거니와 다시 지난 十九일 도지사부인순시를 기회로 사정을 진정하후 또다시 三十一일지방유지의 주최로 면민대회를 면사무소구내 장경공동 판매장에서개최하고 하년여장 하급수가에 대하야 장시간토의하엿다는바 변경을두고 면민주머니를 털어내본다이 만여원이든 예도 불구하고 당국에 허가를얻지못하야 시행치

脫走한砲兵
窃盜하다가被逮

[거포] 거포주재소(巨浦駐在所)에서는 지난三十일 오전十一시경 거포역부근에 배회하고잇든 수상한 일본내지인 한명을 주목하야 겨우 모라려하고 엄중한 취조를한결과 그는 산구현(山口縣) … 일 산구포병(山口砲兵)제四十二연대(聯隊)에 입영하엿든바 병으로인하야 三월十六일 위수병원(衛戍病院)에 입원치료중 군인생활이 하기실허 지난二十七일 오후十一시경 동병원을 탈주하야 가진돈 九원에 부산으로 왓으나 이 한푼도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十一일 오전二시경 부내남빈정(府內南濱町)모 일본내지집에 침입하야 현금一원九十전과 의복(衣服)一개 외상시계 一개를 절취하야 거포방면으로 왓다가 그와같이 체포된것이라고한다。

消息

◇大久保□六氏(朝鮮農業技術館館長) 赴任人事次本社來訪

◇申麥桐不一明氏(奉化靑年同盟) 社會…來訪

洪原幼稚園同情 音樂、歌劇의밤
◇日時 八月五、六兩日
◇場所 洪原商務禮館
◇主催 在東京洪原留學生會
◇後援 朝鮮、中央、東亞、三支局

中朝鮮軟式野球大會
一、時日 八月三、四兩日間
一、場所 水原華城學院球場
申請 八月一日까지參加金三圓添附
◇主催 水原體育會
◇後援 中央、朝鮮、東亞、每申四支局

市民慰安音樂會
◇日時 八月十七日
◇場所 陜川公會講堂
◇主催 陜川留學生親睦會
◇後援 朝鮮、東亞支局

在京留學生歡迎蹴球大會
◇日時 八月四日午後三時
◇場所 扶餘古蹟그라운드
◇主催 扶餘體育會
◇後援 中央、朝鮮、東亞支局

全慶尙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四日(日曜日)雨天順延
◇場所 蔚山小學校코-트
◇參加金 每組一圓
主催 東亞日報蔚山支局
後援 蔚山庭球團

第二回西鮮朝蹴球大會
◇日時 八月十五日
◇場所 博川面事務所그라운드
◇申請場所 博川體育會蹴球部
◇申請期日 八月十四日까지
◇申請金 二圓也
◇主催 博川體育會
◇後援 朝鮮、東亞博川支局

◇日時 八月四日(雨天順延)
◇場所 蔚山小學校코-트
◇申請期日 八月三日
第一回全慶尙個人庭球大會
◇主催 東亞日報社蔚山支局
◇後援 蔚山庭球團

第一回夏期律動遊戲講習會
◇期間 八月六日부터八月十四日까지
◇講習會場 宣川會館
◇講師 金永煥先生
◇講習科目 律動遊戲
◇定員 三十名
◇會費 二圓
◇主催 宣川會館
◇後援 東亞日報宣川支局

眉愁 (80)
尹白南 作
李靑田 畫

七、히생 (五)

여자와 함께나마 최후의항호를 서엿다。

홍도에게 터 미를 쥐어바린 양원은 마지데가 중재이라

「홋」

하고 늙기는 소리를 내질으며 뒤로 너머저다。

그 순간에 홍도는 몸을 빼처한간통이나 떠러저 서며 무서운 눈으로 양원을 노리어보앗다。

「애이 이 더러운 놈가트니」

이것이 조선사람가텟으면 뚝 큰 경우일것이지마는 호인놈이라는 생각이잇어 더욱 미움이 폭발된것이엇다。

「소위 장군이란놈이 무고히 사람을 죽여라는것도 가증하거니 아 유부녀요」

하고 견분에오이 서서 뒤ㅅ말이 나가지안는다。

양원은 일이 그릇된것을 알엇다。

홍도를 남아든 흉한 새하마리 그리 쉽게 어지안코도 맘대로 할줄알엇다가 상대가 의외로 大센것을알엇다。

오나 인제 재아단의 수단이다 양원은 손바닥을 치며 무엇이라고 외마대소리를 내질럿다。 하니까

「넵!」

하는 상올실소리가 나며 장영의 얼골이 방안을 드려다본다。

양원은 수치와 견분에 이그러지 얼골을하며 무엇이라고 입제게 씨부린다。

장영은 방안으로 드러왓다。

「부인 왜 생각이 없어 그러슈 상가 내가 뭐라고 협했가 남편을 구하려거던 자기몸은 생각말라고 햇지오 난 장군한테 별려없다구 해노앗더니 이게무슨 일경요」

「그저 일정이라니오 그건 내가 혀막이죠 이나라에서는 남의 유부녀를 바누 히롱해도 괸계치안탐요 아무리 남편을 구하고신다들 정조까지 팔어서 하고시지안오」

「글세 그건 경우에 딸어서 그러치 어림없어한 눈을 감는법입니다 에사?이 아니요?」

「예사? 이나라에선 그게 예사로구려」

「이나라이나 할것없이 어떠나라에선 그러치 안습닛가」

이때에 홀의말을 분한듯이로 바라보며 뭇고잇던 양원이 장영더러 무엇을 재촉하는모양이엇다

「긴게할때 쉬테잇나 일은 순순히 되기 틀렷으니 내말대로해」

하는말이엇다。

장영은 유편 더듬도를 흘려본다

「공연히 가슴앓은 경상보지말고 순종하시오」

「못해요」

남가롭게 대답하는 홍도의태도에는 용이히 범할수없는 무엇이 잇엇다。

그러면 할수없다는듯이 고개를 번쩍들어 홍도부인을 나려다보듯이하며

「좋지마슈」

하는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간다

양원은 도라서서 호터진 옷깃을 가다듬으며 기침을 두어번하며 거드름을 피운다。

이윽고 장영이 다시 드러온다

「네 바루 이 길방으로 끄으러다노왓읍니다。」

「뭣나」

「둘립가」

「둘리고 말고요 여니 이야기소리도 들리는데 그소리가 안들리겟슴니가」

「청구는」

「주먹을쥐라고 행읍니다 철편을쓰면 오래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럽 곳시작허라구 그리지」

「네 그러케 허겟읍니다」

이러한회화가 그들사이에 오고가고하엿다。

장영은 홍도신을와서

「다시한번 생각허시겟오 지금 이건방에다가 당신남편을 끄러다놋는데 그가매를맛고 안맛는게 당신맘하나에 달렷슴니다

말씨는 보드랍우나 내용은 소름이 끼치는 것이다。

홍도는 아무말도 하고 입을 깨무러다。

ClibPDF - www.fastio.com